

『향수』 기말 레포트  
- 마법을 풀지 못한 개구리 왕자

국어국문학과  
2012\*\*\*\*\* 민효진

1. 들어가며
2. 그르누이가 마법을 풀 수 없었던 이유
2.1 그르누이의 마법 - 체취의 부재
2.2 그르누이에게는 없었던 공주 - 사랑의 부재
3. 잘못된 해독제 - 욕망
4. 죽음으로서 풀린 마법
5. 나오며
참고문헌

1. 들어가며

『향수』는 주인공 그르누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담아낸 이야기이다. 다만 그 인물에게는 체취가 존재하지 않으며 후각에 있어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체취가 없는 그는 완벽한 향수를 만들어 자신의 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체취를 담기 위해 살인을 한다. 하지만 소설은 살인자 그르누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핍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

그르누이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개구리라는 뜻이다. 개구리와 그르누이는 몇 가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개구리는 몸이 주변온도에 따라 변하는 변온동물이다. 주변 환경에 따라 자신을 바꿔가며 사는 것이다. 이는 그르누이가 향수를 이용해서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싶은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생활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리고 개구리는 물과 땅을 오가면서 사는 동물이다. 이런 모습은 그르누이가 사람들 사이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둔하면서, 마치 개구리처럼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의 처지와 닮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르누이를 보면서 개구리왕자가 생각났다. 공주의 키스를 받고 마법이 풀리는 동화 속 멋진 왕자가 아닌 끝내 마법을 풀지 못하는 개구리 왕자 말이다.

그르누이에게는 체취가 없다는 마법이 걸려있고 그 마법을 풀어줄 공주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욕망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가 어떤 마법에 걸렸고 왜 그 마법을 풀 수 없었는지, 결국 그 마법이 어떻게 풀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2. 그르누이가 마법을 풀 수 없었던 이유

### 2.1 그르누이의 마법 - 체취의 부재

프랑스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곳에서 1738년 7월 17일 가장 더웠던 날,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가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동안 맡아온 생선냄새와 주변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어떤 냄새에 대해 코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르누이를 뱉어내듯 낳고 참수되었다.

그르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체취가 없었다. 소설에서 왜 그르누이에게 냄새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단순히 돌연변이로 정의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체취가 없는 데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잉태하고 있을 때부터 생계와 주변악취로 인해 냄새에 대한 자극에 둔감했고 무엇보다 그녀가 그르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속삭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배를 어루만지며 ‘소중한 내아가야’라고 부르다든가 애정을 담아서 태교를 했을 텐데 그녀는 그르누이를 생선 대가리들 사이에 버렸다. 또한 그르누이의 엄마는 소설에서 한번쯤은 ‘결혼을 해서 할아버지 수공업자의 존경할 만한 부인이 되어 정식으로 아이들을 갖고 싶었다’<sup>1)</sup>고 말하는 것을 보아 정식으로 결혼해 아내로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로인해 그녀에게 생긴 아이들은 그저 피임을 하지 못해 생긴 ‘실수’였던 것이다. 때문에 그르누이는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전달받아야 할 어머니의 냄새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체취 없는 아기로 태어난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그르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며 아슬아슬하지만 질기게 생을 유지한다. 운 좋게 수도원으로 보내져 유모에게 맡겨지지만 잔느 뷔시는 그르누이가 자신의 것을 빼앗는 듯한 섬뜩한 기분에 그르누이를 테리에 신부에게로 돌려보낸다. 하지만 신부조차도 그르누이의 별름 거리는 코에서부터 비롯된 공포로 그를 가이아르에게 보낸다. 이들이 그르누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에게 체취가 없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후각 세포가 손상되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가이아르는 그르누이를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대해주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르누이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다르다는 것은 집단 안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구별해내며 자신에게 위협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래서 그르누이는 평생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인해 섞이지 못하고 소외당하며 고독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냄새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작가는 체취를 영혼으로 치환한다. 체취는 한 인간의 ‘고유성이며 영혼’이다. 이는 소설의 부분 부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건설하고 파괴하는 인간의 활동, 싹이 터서 싹기까지의 생명의 과정치고 냄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sup>2)</sup>*

1) 파트리크 쥐스킨트, 『향수』, 열린책들, 2000.08.15.p.12

2) 위의 책 p.10

그녀는 그 아이의 냄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영혼이 마비된 그녀는 그 아이로부터 어떤 정신적 자극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3)

그러자 땀구멍에 막혀 있던 지방질까지 다 묻어 나왔고 그와 함께 그녀의 마지막 숨털, 마지막 향기 조각까지 다 빠져나왔다. 이제야 비로소 로르는 정말로 죽은 것이었다. 4)

위의 예시들은 체취가 영혼이라는 것을 암시한 대목이다. 생명은 영혼이 깃들어 있어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라면 이들에게서는 분명히 냄새가 존재해야한다. 이는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가이아르는 그르누이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후각을 잃었다. 후각을 잃은 후로 그녀는 내면적으로 거의 모든 감정들이 죽어버렸다. 이는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다르지 않았다.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영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 역시 영혼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로르가 죽은 시점을 숨이 끊어졌을 때가 아니라 체취가 다 빠져나온 다음으로 보았다. 이는 체취가 영혼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으로 보았을 때 그르누이에게는 영혼이자 고유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가 사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 2.2 그르누이에게는 없었던 공주 - 사랑의 부재

동화 속 개구리 왕자는 그의 마법을 풀어줄 공주가 있었다. 비록 공주는 흉측한 모습에 거북함과 불편함을 느꼈지만 결국엔 왕자의 본 모습을 알아주고 입맞춤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르누이에게는 그의 본모습을 알아주고 사랑을 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향수의 결말에서 온갖 종류의 천민들이 사랑으로 비롯된 행동을 하는 부분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절대 향수 없이 사랑받을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다들 그르누이를 스치기라도 하면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를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자신의 이윤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때문에 그는 성장하면서 ‘사랑’이라고 느낄 만한 감정을 경험해 본적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향기의 왕국에서 달콤한 쾌감을 느끼며 향기를 탐했다. 하지만 이 왕국은 그가 자신의 체취가 없음을 인식하고 큰 괴로움을 느끼면서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사람들이 왜 자신을 의식하지 못했는지 깨닫는다. 자신에게는 체취가 없기 때문이다. 그르누이는 이 사실을 받아드리고 자신의 마법을 풀어줄 대상을 천사의 향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이를 몰랐던 그는 인간의 냄새 일뿐만 아니라 초인간적인 냄새, 말로는 이루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활력이 넘치는 냄새,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냄새의 주인을 마음 속 깊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sup>5)</sup> 절대적인 냄새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향수가 낮이 나가고 미칠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겠다’는 이유는 철저하게 사악한 자신의 마음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한다. 하지만 그르누이가 절대향수를 제조하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마음보다 사

3) 위의 책, p.38

4) 위의 책, p.338

5) 위의 책, p.235

랑받고 싶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저 방법 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착시적인 사랑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에게는 영혼이 없었고 영혼이 없다는 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대상의 부재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과 없음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며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향수라는 황홀한 대상이 있을 때에만 그를 인지했고 오로지 받으려고만 했다.

### 3. 잘못된 해독제 - 욕망

‘사랑을 거부하고 생명을 선택한’<sup>6)</sup> 그르누이는 작은 키에 구부정한 모습, 절름발이에 성장하면서 앓은 병으로 인한 흉터를 가지고 있다. 추한 외모의 그는 자신에게 없는 체취를 얻기 위해, 그것도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향기를 얻기 위해 처녀성을 잃지 않은 소녀들의 향기를 탐한다. 『향수』에서 ‘물 오른 촉촉한 꽃’은 여자로 성숙해가는 소녀의 성적 이미지와 순결성을 담고 있다. 그르누이의 관심은 오직 처녀성을 간직한 아름다운 소녀들에 향한다. 그리고 향을 상실한 로르의 몸은 “시든 꽃잎 Blütenabfall”으로 비유되며, 이는 처녀성의 상실을 상징하고 그르누이는 더 이상 그 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sup>7)</sup> 그가 욕망한 것은 그녀들의 육체가 아니라 향기이기 때문이다.

‘愛’라는 한자에는 자애(慈愛),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뜻과 물욕, 탐욕이라는 뜻이 공존한다. 그르누이의 절대향수에 대한 사랑은 자애가 빠진 집착과 탐욕만이 뒤섞여 있는 욕망덩어리다. 우리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욕망에 사로잡히다, 빠지다, 충족되다, 이루다 같은 표현을 많이 쓴다. 이것은 욕망의 세계에는 소유와 지배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공간을 열고 받아드리는 사랑과 구별된다.

욕망의 그르누이는 소녀들의 향기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야심이 점점 더 커진다.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곧 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그녀에게 다녀갔구나! 나를 앞질러 그 꽃을 빼앗아 향기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구나!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실망이 너무 컸다. 그 대신 눈물이 흘러나왔다.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더니 코 양 옆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다.*<sup>8)</sup>

위의 인용문은 그가 로르에게서 마레 거리에서 마주친 빨강머리의 여자와 같은 향기를 발견했을 때 흘린 눈물 다음으로 그가 다시 눈물을 흘린 장면이다. 이것은 그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망에서 나온 눈물로,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욕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욕망의 영역은 채울 수 없는 부분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가치를 잃게 된다. 부족함을 느껴서 원하는 것으로 채웠지만 다시 그 공간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충족이란 되지 않는 것이 욕망이다. 그르누이도 처음에 썩은 달걀, 암모니아, 치즈, 사향 등을 섞

6) 위의 책, p.36

7) 정명순, 「쥘스킨트 『향수 Das Parfum』에 나타난 에로스」, 한국독일언어학회, 2012.12, p.196

8) 위의 책, p.318

어 평범한 인간의 냄새를 만들어 냈고 그것으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고 인간을 굴복하게 할 천사의 냄새를 만들겠다는 욕망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절대향수 만드는데 성공했고 그가 바라던 대로 누구든 그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는 예전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과 그 향수를 비웃게 된다. 천사의 향을 만들어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법이 풀릴 줄 알았던 그르누이는 그 향마저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 4. 죽음으로서 풀린 마법

*곧 여기저기서 단검이 번쩍이더니 그의 몸을 찢러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도끼와 칼을 이용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관절과 뼈를 토막내 버렸다. 천사의 몸뚱이는 삼시간에 서른 조각으로 잘렸다. 그걸 한 조각씩 움켜쥔 사람들이 황홀한 쾌감을 느끼며 뒤로 물러나 먹기 시작했다. 반 시간쯤 지나자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삶의 의미를 잃은 그르누이는 자신이 태어난 장소로 돌아간다. 온갖 천민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르누이가 절대향수를 온몸에 뿌리자 부랑자들의 외경심은 갈망이 되고 놀라움은 감격이 되어 천사인간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르누이는 자신이 만든 천사의 향수처럼 반나절도 안돼서 사라진다. 부랑자들은 그의 몸을 서른 조각으로 나누어 먹고 행복의 미소를 짓는다. 이는 공개 처형장에서 천사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난교를 하며 사랑을 외친 것과는 구분된다. 이들 역시 천사의 향을 맡고 다가왔으나 향기가 사라지고 난 후 한쪽은 수치와 당혹감을 느낀 반면 부랑자들은 당당하고 떳떳했다. 그들의 행위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르누이 역시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부랑자들에게 다가갔다. 평생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르누이는 사랑받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다. 그르누이와 부랑자들은 서로의 열린 공간을 알아보고 그르누이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내주었다. 그리고 부랑자들도 그에게 사랑을 주었다. 비록 그의 탄생에는 사랑이 거부당하며 공존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죽음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랑자들이 향수의 힘에 이끌려 그에게 달려들지만, 죽는 순간 ‘향기의 가면’이 아닌 그르누이 자신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F. Schardt 1982, 43).<sup>9)</sup> 그가 살아서 자신의 고유성을 얻는데 실패하고 사랑을 ‘죽음’으로서 얻었다는 점에서 비극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속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 부정당한 삶에서의 해방이자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 5. 나오며

지금까지 그르누이가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왜 그 결핍을 해소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체취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마녀가 건 저주 같았을 것이다. 체취가 없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그는 후각적으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으로 다른 것들의 본질은 구별 할 수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본질은 구별해내지 못한다. 이것이 그르누이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9) 김홍섭, 「예술가소설로서의 『향수』」,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4, p.68

체취의 부재는 다른 사람과 영혼으로 교감 할 수도 없고 감정을 주고받을 수도 없게 만든다. 때문에 이는 사랑 또한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저주를 낳는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그루누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향을 만들어 내지만 이마저도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른 이의 사랑을 빼앗았던 그에게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지금껏 미워하고 또 미움 받는 것에서만 만족을 느꼈던 그루누이는 죽음으로써 처음으로 미움과 증오라는 감정을 버리고 사랑을 경험했다. 다만 그가 갈기갈기 찢기고 뜯어지면서 저주가 풀린 것은 그가 만들어낸 향이 살인으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의 죽음도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저주를 푸는 모든 것에는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파트리크 쥐스킨트, 『향수』, 열린책들, 2000.08.15.

##### - 참고논문

김홍섭, 「예술가소설로서의 『향수』」, 한국독일언어학회, 2014

정명순, 「쥐스킨트 『향수 Das Parfum』에 나타난 에로스」, 한국독일언어학회, 2012.12